

“문화관광도시 탈바꿈”

● 임택 동구청장



지역경제·맞춤형 복지·도시재생 등 범접

임택 광주 동구청장은 “코로나 일상시대를 대비하는 2021년을 ‘제2의 동구도약’ 원년으로 삼아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관광 활성화, 자치공동체 실현 등 주민이 행복한 동구건설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임 구청장은 2021년 동구의 미래 신성장동력이 돼 줄 주력산업의 고부가 가치화에 기여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주요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공동체를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다채로운 일자리 기대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동구는 인공지능(AI) 기반 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구축사업 1단계 인프라 구축 완료 후 지속추진을 위한 2단계 연계 사업에 나선다. 또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 등 청년실업 해소에 앞장설 계획이다.

둘째, 원도심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으로 활력이 넘치는 도시환경을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교(窰)두메 마을 도시재생인정사업’을 비롯해 동명동·인쇄의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선교 도시개발사업, 계림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022년까지 쓰레기 발생총량 15% 감축을 목표로 ‘자원순환 그린 뉴딜 동구’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셋째,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정책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마을복지 실현이다. 1인 가구 지원정책 추진과 함께 전국 기초 지자체 중 최초로 마련한 기본복지기준을 바탕으로 아동, 여성, 어르신 등 주민이 체감하는 촘촘한 지역 복지망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넷째, 지역이 보유한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문화예술과 생활체육 기반을 확대한다.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비대면 생활체육활동을 강화시켜 건강증진 및 여가문화 확산에 힘쓴다.

임 구청장은 “작은 변화들이 쌓여 모두가 체감하는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동구를 찾고 살고 싶은 도시, 미래가 기대되는 문화관광도시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말했다. /오송지기자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

● 서대석 서구청장



방역·재난 대응체계 강화...기후변화 대비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은 “2021년은 시민과 함께 서구의 새 가치를 만드는 데 더욱 매진하겠다”며 “사람 중심의 가치와 혁신적인 정책으로 주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서 구청장은 “구정의 모든 정책은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며 “신실한 감염병관리과를 중심으로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선제적 방역을 통한 질병예방을 통해 코로나 방역과 재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로 지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상황에서 지역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고 마을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동(洞)이 작은 정부가 돼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구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미세먼지 저감 정정관리 시범사업인 그린뉴딜사업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기후 위기 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해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추진하고 장기적인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연차별 기후변화 전략계획을 수립한다.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특화사업과 노인·장애인·건강 융합복지서비스로 포용적 복지 안전망을 강화한다.

서 청장은 “18개 동 실정에 맞는 지역맞춤형 복지 계획 수립과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종합사회복지관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빅데이터를 분석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치매안심대학과 다양한 치매예방 전문프로그램을 특화해 운영하는 등 맞춤형 치매관리 강화 및 치매안심 환경기반을 구축해 전국을 대표하는 치매안심도시 모델을 선도하겠다는 청사진을 세웠다.

서 청장은 최근 논란이 된 불법주정차 과태료 무단 면제에 따른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킨데 대해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최명진기자

“남구형 뉴딜 사업 속도”

● 김병내 남구청장



구도심 도시재생·신규 산단 조성 주력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은 “발전이 멈춘 구도심의 심장을 깨우고, 관내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정책성과를 바탕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해 새 번영시대를 열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구도심 도시재생사업과 대촌동 일원 신규 산업단지 조성 성과 및 현 정부의 한국판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남구형 디지털·그린뉴딜 사업 발굴을 통해 남구의 경쟁력을 더욱 굳건하게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김 청장은 백운고가 철거 완료로 남구는 새로운 번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내다봤다.

특히 남구청 개청 이래 단일사업으로 최대 규모인 879억원을 투입하는 백운광장 일대 뉴딜사업이 착공에 들어가고, 신축년에 마무리되는 양림동 도시재생사업 및 신규 사업으로 91억원을 투입하는 방림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큰 기대감을 내비쳤다.

연초부터 백운광장의 랜드마크인 남구청사 미디어 파사드 및 공동보행로, 스트리트 푸드존 등 다양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양림동 어울림센터와 청년창작소 등 10개 사업도 빠른 속도로 추진해 연내에 마무리를 짓겠다는 게 그의 복안이다.

산업구조 다변화와 고도화를 통해 도시경쟁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규 산업단지 2곳에 대한 기업유치와 지방산단인 에너지밸리 2산단 조성,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남구형 뉴딜사업 발굴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에너지밸리 2산단 조성과 지역 정치권과 연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해 인구 30만명의 자족형 경제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인프라와 안전, 교육, 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 구청장은 “주민들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정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체감도 높은 정책 사업을 추진해 22만 주민 모두가 일상속 행복을 누리면서 미래의 꿈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활기찬 남구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복지공동체 기반 조성”

● 문인 북구청장



자가격리지원센터 등 감염 피해 최소화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일상 속 불편함에도 방역수칙 실천에 함께한 44만 주민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여러분 덕분에 예산 1조원 시대를 열고 북구의 미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북구는 지난해 선제적인 코로나19 대응으로 감염 피해 최소화과 민생경제활성화에도 주력했다.

광주시 최초로 승차진료소를 운영하고 자가격리지원센터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와 더불어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물품지원 등 코로나19에 빈틈없이 대응했다.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던 시기인 지난 3월부터 민생경제활성화 대책본부를 가동해 민생 안정화에 노력 중이며 정부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북구형 재난지원금을 마련해 소상공인, 종교시설 등 총 2천240곳에 9억 7천여만 원을 지원했다.

지난 7월에는 ‘북구 자영업지원센터’를 새롭게 설치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체계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컨설팅사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특례보증대출 및 이자차액 보증료 지원사업 등 경영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북구는 새해에는 경제종합지원센터를 필두로 산학연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4차 산업융합미니클러스터를 통한 신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드론과 인공지능 인재를 본격적으로 양성해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2023년까지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광주역 일원을 혁신지구사업 등과 연계한 복합개발을 통해 젊은이들이 모여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광주형 실리콘밸리 조성의 토대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위기가구 발굴단과 모바일 안심 돌봄 서비스 등의 복지안정망을 통해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이웃이 이웃을 돕는 복지공동체의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수기자

“계층·지역별 행복 제고”

● 김삼호 광산구청장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공기 산업 육성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은 “대전환의 시기인 2021년에는 시대 요구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김 구청장은 대전환에 대비하며 신축년 새해 구정을 이룰 4대 방향을 소개했다. 첫째는 민선 7기 구정 핵심 가치이기도 한 ‘시민 행복’이다.

광산구는 추상적 개념인 행복을 정책으로 구현하고자 지난해 시민 행복도를 조사하고 행복 지표를 개발했다.

김 구청장은 “모든 부서가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민 행복도 조사 결과를 반영할 것”이라며 “계층과 지역별 행복도를 향상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더 많은 시민이 행복에 대한 기대를 키우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새해 두 번째 핵심 구정 방향은 ‘안전’과 ‘건강’이다.

김 구청장은 실천방안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이 감기와 독감 등을 치료받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운영하겠다”며 “면역력 향상 처방을 제공하는 시민면역클리닉센터도 운영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세 번째는 공기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살리기’이다.

광산구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2019년부터 공기산업을 지역경제 성장판으로 키우고 있다.

김 구청장은 “성능은 같아도 가격은 기존보다 3분의 1 수준인 미세먼지 측정기, 공조 장치를 가동해 미세먼지를 완벽히 걸러내는 버스 승강장 등 시범사업이 구체적인 성과물을 속속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면서 “올해는 미세먼지 측정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리는 체계를 시범 구축하겠다”며 “에어 가전 기업을 육성하는 복합지원센터를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구정 방향은 ‘자원순환 도시’ 기반 마련이다.

김 구청장은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나눠 쓰고, 다시 쓰라’이다. 자원순환 해설사 양성과 교육, 캠페인 등으로 다시 쓰는 문화를 일상에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고훈석기자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5-5530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지사 061)278-0740
- 남문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시내 지역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5-5530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지방 지사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시내 지역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323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지방 지사

- 무안지사 061)453-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청단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시내 지역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